

만다라의 종교교육 화용론

김 용 환

충북대학교

〈요 약〉

인간의 심층의식에서 많은 개체들은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만다라의 종교교육 화용에서는 ‘부처의 성품이 나의 중심에 있다’ 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표현이 상통한다. 동양인이 부처를 명상할 경우처럼, 서양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심층의식의 원형이미지로서 상통이 가능하기에 종교 다원성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된다. 특히 별존 만다라를 그리거나 명상함으로써, 종교교육 참여자는 자아 해체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마침내 내면에 복귀하여 영성우주와 일체감을 이루고 주객이분이 사라지면서 사물의 ‘공성’(비움)을 깨닫는 쪽으로 영성자유에 접근하게 된다.

이처럼 만다라의 종교교육 화용에서 살펴보면, 종교교육 참여자는 신성과 자신의 소통을 경험하거나 만다라가 표상하는 심층의식의 지향에서 의식변화를 경험하게 됨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만다라의 종교교육에서는 영성 안내자의 역할이 만다라의 가시화 과정에 있어서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 칼 융은 현대인의 무의식적 혼돈에서 원형회복이 중시되면서 만다라의 개성화 과정이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종교교육에서 만다라의 가시화는 자신의 비움과 사물의 공성을 깨닫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아울러 생명실상에 대한 접근의 방편으로 ‘의식의 전환’(transformation of consciousness)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종교교육 참여자에게 도덕적 상상력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화용될 수 있다. 이처럼 만다라 의례 또는 만다라의 종교교육의 화용은 의식의 전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미지로서 내면의 본성을 올바로 자각함에 그 목적을 둔다. 외부세계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면에서 지혜를 깨닫게 됨으로써 우주의 광대함을 만다라 이미지의 섬세함으로 발견하게 되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종교교육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심리적, 정신적으로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경우가 드러난다. 이러한 영성치유의 목적을 위한 실천화용의 방안으로 만다라 명상이나 만다라주제의 그림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신의 내면에 접근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회복하거나 중심을 찾으려 한다. 종교교육에서 만다라를 그리거나 활용하기 전에 준비예식을 잘 할수록 효과는 더 크다고 보기에, 준비과

정이나 의례를 중시하게 된다. 종교교육에서 만다라 화용방안은 분열된 심층의식의 통합, 생명의 성찰, 자유 실현에 이르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영성치료의 역할로 나아감이다. 따라서 만다라는 정서지능과 인격통합의 종교교육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성치료 영역에 이르기까지 화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 우리는 만다라의 상징과 의미 분석, 만다라에 나타난 금강승 불교, 심층의식 전환의 종교교육 화용에 대하여 살펴보게 된다.

핵심 주제어: 의식의 전환, 대일여래, 금강계만다라, 종교교육 화용, 심층의식, 정서지능

I. 머리말

종교가 특수문화를 형성한 곳에서 종교교육은 건강한 문화를 유지하는 데 주요 역할을 했다. 개인의 인격발달에 대한 종교교육은 도덕성·제의·세계관·신화·종교체험 등과 연관된다. 전문가들은 종교교육의 내용과 기술을 개발하고, 입문자들을 준비시키며 교육시키는 실제 과정을 도맡아서 종교교육의 핵심역할을 이행한다. 종교체험을 강조하는 종교교육 전승에서는 체험의 단계를 중시한다. 이 단계들 가운데는 준비·정화·계시·합일의 신비체험처럼 개념지식보다는 심리상태를 중시한다. 우리는 이 글에서 만다라가 불교 전통을 배경으로 하지만 다른 종교와 맥락상통이 이루어져 종교교육의 화용이 가능함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종교교육에서는 이미지의 이해와 소통이 중요함을 해명하고자 한다.

만다라의 어원은 ‘만다’(mannda)와 ‘라’(la)이다. ‘만다’(manda)는 ‘본질’이며, ‘라’(la)는 성취를 의미하는 접미사로 구성되어 만다라를 ‘마음에 참을 성취함’ 또는 ‘본질을 원만 구축함’ 등으로 풀이한다. 초월적 존재의 상징으로 만다라를 표현하는 문화권에서 구(球) 또는 원(圓)의 형상은 기도와 명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면, 티베트의 만다라 불화, 중국과 한국의 ‘태극’, 원불교의 일원상, 기독교 성화의 예수 그리스도와 네 제자의 형상 등이 만다라에 포함된다. 만다라는 심리적 치유의 힘을 입문자에게 드러냄으로써 종교교육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나바호 인디언들은 모래만다라를 통하여 상처와 병을 치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다라가 우주를 상징하는 방식은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영성우주의 형태는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로서 표현되었으며 그 원초형태는 꿈과 비전을 통해서 드러났다. 만다라는 ‘본질을 성취한 것’이지만, 금강승불교에서는 ‘깨달음의 경지를 의례를 통하여 도형화(圖形化)한 시각형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만다라는 『대일경(大日經)』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태장(胎藏)만다라와 『금강정경(金剛頂經)』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금강계(金剛界)만다라로 나뉘어 양부만다라로 부른다. 태장세계는 모태(母胎)가 생명을 구축하듯이, 만물을 내장(內藏)하면서 삼구(三句)의 영성세계를 표상한다.¹⁾

자비감성이 부각된 ‘태장 만다라’는 모태에 태아를 감싸는 심장 이미지에 자비의 생명력을 사방으로 분출하는 동심원의 형태를 취한다. 반면에 지성만다라에 해당되는 ‘금강계 만다라’는 9 개의 정방형으로서 지성적 냉철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만다라에서는 우주의 통합 상징을 부각시키면서 양극이 대칭을 이루어 4의 배수를 강조하거나 원형을 강조함으로써 영성자유의 실현을 표상한다. 서양의 칼 융(C. G. Jung)은 만다라의 우주이미지를 분석함에 있어 혼돈의 마음을 보호해 주는 ‘마법의 원’으로 풀이하면서, 심리치료 기능을 강조하였다. 심리분열과 일탈현상은 만다라 이미지를 통하여 표현되는데, 융은 이를 ‘자기 개성화’(Self-individuation)과정으로 풀이하였다.²⁾

원형의 종교이미지는 스스로를 치유하는 심층심리와 연결되어 종교교육에서는 영성세계를 통한 치유화용을 가능하게 한다. 만다라는 심층의식 세계를 우주배분의 원리로 드러난다. 여기서 우주원형은 동일형상과 상념반복으로 드러나서 집단적 심층의식으로 표상하고 있다.

영성우주로서의 만다라는 집단적으로 종교의례를 통해서 실현되고 체험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불교의 일원상(一圓相)은 만다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일원상은 ‘사은사요’(四恩四要)의 신앙과 ‘삼학팔조’(三學八條)의 수행이 되지만, 만다라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광대 무량의 영성우주가 반영된 것으로 낙원의 영성차원을 집약하기에 상통이 가능해진다. 서양의 경우, 십자가 중심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방위를 차지하는 형상은 광의의 ‘만다라 형상’에 해당한다.

인간의 심층의식에서 많은 개체들은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만다라에서는 ‘부처의 성품이 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또는 ‘나의 생명 중심에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라는 중심상통의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동양인이 중심 이미지로 부처를 명상하는 것처럼 서양인은 그리스도를 중심 이미지로 상통함으로써 심층의식에서 문화의식이 반영된 원형이미지의 상통이 가능해진다. 만다라를 그리거나 명상함으로써, 종교교육의 참여자는 자아통합과 해체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우주의 중심에 복귀함으로써 우주와 일체감을 이루기도 한다. 여기서는 주객의 이분현상이 사라져서 사물의 ‘공성’을 체득하거나 ‘자기 비움’을 깨달아 종교다원주의를 영성체험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만다라의 종교교육 화용에서, 참여자는 신성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만다라가 표상하는 심층의식의 지향성에서 내면적 의식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만다라의 종교교육 화용에서는 영적 ‘스승’(guru)이 가시화 과정에 있어서 요청된다. 현대인의 무의식적 혼돈은 쉽게 망각하고 그 모습을 회복하지 못할 때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종교교육에서 만다라의 역

1) 『대일경』(大正藏18), p.1b. 三句偈는 ‘세 마디로 법을 표현한 말’이란 뜻으로, 원래 『大日經』第一住心品에서 집금강비밀주보살이 “세존이시여! 如是한 智慧는 무엇에 因하옵고, 무엇을 根本하며, 무엇에 究竟하나이까”고 질문하자, 세존께서 “菩提心이 因이고(菩提心爲因:初句), 大悲가 根本이며(大悲爲根:中句), 方便이 究竟이니라(方便爲究竟:後句)”고 답변하시는 문답이 세 마디 즉 三句이다.

2) C. G. Jung., *Mandala Symbolism* (Princeton: Princeton Univ, 1973), pp.71-73.

할을 중시하면서 생명실상 접근의 방편으로 ‘의식의 전환’(transformation of consciousness)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종교교육 참여자에게 도덕적 상상력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다라의 종교교육의 화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만다라의 상징과 의미해석, 만다라의 금강승불교 전통, 심층의식의 종교교육 화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만다라의 상징과 의미 분석

만다라 이미지는 우주 삼라만상이 상호 의존되어 있음을 일깨워주고 심성을 통일시켜 주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만다라는 의례를 통하여 영성심상을 그려낼 때 생겨난다. 이에 따른 만다라 상징은 두 측면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기존의 의미질서를 회복시키는 목적과 함께 새롭고 독특한 체험형태를 첨가함으로써 변화를 제공한다. 나선형의 구조로서 의식이 상승하는 가운데 같은 지점을 정형적으로 반복해서 되돌아오는 과정을 경험한다. 나선의 축이 진진하지 않고 후진할 때는 무의식의 내면을 향한다는 것을 암시하게 된다. 또한 만다라의 상징해석에서 심층의식이 발견된다. 만다라체험에서 ‘느낌’은 억압된 감정을 풀어주면서 사유의 경직성과 한계를 극복하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이미지로 축소된 영성우주에서 망각된 느낌의 축을 발견하여 무기력한 일상을 초월한다.

만다라의 종교교육 화용을 통한 상호대칭의 역설적 미묘함에 대한 통찰은 느낌의 축에서 의식의 전반적 깨어남이며, 의식적 상상력이 일깨워짐으로 일상을 탈출하는 계기가 된다. 심층 분석의 융(C. G. Jung, 1875-1961)은 20세기 초기의 서구 문화에서 만다라의 우주적 영성의미를 발견하였다. 만다라가 인간정신에 주는 상징해석과 분석을 통하여 인간에게 심층의식 세계의 중요성을 알려준 계기가 되었다.

융이 만다라를 치료차원으로 접근하게 된 계기는 당시, 정신분석학의 권위자인 프로이트와 결별을 선언한데서 비롯한다. 융은 개인적으로 심한 정신위기에 처했으며 사회관계를 기피하여 스스로의 은둔생활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칩거에서 융은 거의 매일 자신의 내적 상태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것은 일정한 질서를 나타내면서 거의 원형형태를 보여주었다. 마침내 원의 형태 그림을 그리면서 스스로 자신의 심적 갈등을 치유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몇 년 후에 자신이 그리는 원 형태의 그림이 역사적인 전통을 지닌 만다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만다라는 심리에너지를 자신에게 집중시키며, 서로 반대되는 상극을 연결하고 그 사이를 상통하고 매개하는 기능을 한다. 융은 만다라의 도움으로 내적 조화를 얻게 되었고 자신과 일체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결국, 그는 만다라가 ‘개성화(individuation)의 과정의 그림’이라는 확신을 얻게 된다. 이처럼 만다라가 인간의 내면세계를 비추는 거울임을 발견

한 후, 그는 의식적으로 만다라를 그리거나 자신의 환자 치료에 만다라를 화용한다. 융은 분석심리학에 근거한 미술치료에 꿈의 시리즈를 통한 만다라가 순환적 개성화 과정으로 화용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만다라 화용의 이론을 확립하게 된다.

종교교육 화용으로 만다라는 인간 내면의 ‘능동적 상상’이며, 심층의식의 심상을 자신의 현재의식으로 끌어 들이는 면모를 보여준다. 융은 동양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은 서양인들에게도 심층의식을 반영하는 만다라 그림이 그려지고 있음을 강보하면서, 내적 평형을 잃은 상황에서 꿈이나 그림을 통해 만다라 형상이 잘 나타난다고 말한다. 융에 의하면 만다라는 개인의 심층의식에 잠들어 있는 ‘원형’(Archetype)을 일깨워 주는 열쇠가 된다. 융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간정신에서 종교원형은 항상 열려 있으며, 이 원형은 내면과 외면, 대우주와 소우주 사이를 상통하는 균형기제가 된다. 인간에게 각인된 원형(Archetype)의 상징을 화용하여 자기정체성을 찾기 위한 심층의식기제가 되기에 만다라는 일종의 ‘마법의 원’에 해당한다.

이처럼 만다라는 영성체험뿐만 아니라, 종교교육 현장, 치료영역 및 창의작업 등에도 다양하게 화용된다. 서구에서는 융(C. G. Jung)이 심층심리학적 입장에서 만다라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한 후부터 만다라의 현대적 화용으로서 영성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융에서 보듯이, 자신이 스스로 만다라를 그림으로써 자기를 발견하는 체험을 하고, 정신과 환자들에게 적용하여 그들의 심층문제를 해결하는 화용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처럼 만다라를 그리거나 자기발견과 치료과정을 감동적 글로 발표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났다. 만다라의 색채기제를 종교교육 수업에 화용하면서 만다라 상통에 따라 참여자의 생체에너지가 변화함을 경험하였다. 아울러 만다라의 미세에너지와 색채광원 파동은 만다라 컬러치료기제로 작동하면서 의식변형 과정의 화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색채로 나타난 기감(氣感)으로 인지되면서, 만다라는 유체를 자극하는 빛을 통해 에너지 상태를 변환시켜 원활한 ‘기(氣)’의 순환을 가능케 함으로써, 생체에너지의 변화는 오링테스트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참여자에게 생체에너지 기제를 새롭게 터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에너지의 상통작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컬러치료기제로 만다라화용의 작업은, 종교교육에서 자신의 내면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찾는 길잡이가 되기에 종교교육의 이행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만다라 화용을 통하여, 만다라의 형상과 색의 균형, 조화에 몰두함으로써 스스로 고요를 체험하거나, 창의적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교육적 효과를 이루게 된다.

이처럼 고요체험과 창의수업 화용으로서 만다라는 즐거움과 재미를 주며 창의성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한다. 종교교육에 만다라를 명상하거나 실제로 그리는 화용으로서 고요세계에의 몰입이 된다. 만다라를 화용하는 동안, 참여자는 스스로 이루어 놓은 고요가 점점 더 깊은 뿌리를 가짐을 통찰한다. 내면의 고요와 집중력은 종교교육의 또 다른 열쇠가 된다. 학습 참여자가 깊은 집중력을 경험하면 내면적으로 몰입하거나 변화하는 계기를 마

련하게 된다. 즉 종교교육의 참여자는 보다 조용해지고, 보다 지적이 되며, 보다 개방적이 되어서 융통성을 발휘하기에 이르며 종교다원주의 가치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마침내 종교의 교조적 폐쇄성도 극복한다. 만다라 화용을 통한 종교교육의 영향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³⁾

- ① 종교교육에서 자신을 알아차림이 부각되면서 의식이 점차로 고요해진다.
- ② 종교교육에서 외부대상에 의해 분열된 것이 다시 하나로 모여짐을 경험하게 된다.
- ③ 종교교육에서 의식이 추구하는 영성세계와 일체감을 경험하게 된다.
- ④ 종교교육에서 자신의 내면중심에서 나온 에너지를 우주적 힘으로 경험하게 된다.
- ⑤ 종교교육에서 마음의 내면적인 여유와 감수적인 민감성을 지속적으로 일깨울 수 있다.
- ⑥ 종교교육에서 내면적 집중도를 높이기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자세를 발휘하게 된다.

이처럼 만다라를 종교교육에 화용하는 과정에서 분열된 자신의 통합, 삶의 본질, 내면에 이르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만다라 종교교육 화용에서는 조화와 균형이 잡힌 영성세계로 인도하여 그 속에 함장 되어 있는 에너지의 흐름을 직접으로 체험한다. 이에는 전통적으로 금강승불교의 영성세계와 상통한다고 생각되기에 이러한 전통을 먼저 살펴본다.

Ⅲ. 만다라의 금강승불교 전통

1. 금강승불교의 전통

근대일본 및 서구에서 불교전통에 기인한 금강승불교와 ‘힌두-탄트라(Hindu-tantra)’를 혼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금강승불교는 대승이후 전개된 ‘밀교(密敎)’전통이다. 한자문화권의 밀교로서 금강승불교는 『대일경』, 『금강정경』에 화엄과 천태, 선(禪)사상이 결합된 지역적 특성을 보인다. 반면에 ‘힌두-탄트라(Hindu-tantra)’는 8세기경 인도종교에 유행한 ‘탄트라(Tantra)’를 소의경전으로 나타난 조류로서 불교와 힌두교를 습합하고 있다. 여기서는 진언과 천문학, 의학, 점성술을 비롯한 비밀의식과 성(性)을 주제로 수행에 반영하였다.

금강승불교와 ‘힌두-탄트라(Hindu-tantra)’는 인도종교에 뿌리를 둔 공통점이 있지만 시대나 지역적으로 다른 사상체계이다. 힌두-탄트라(Hindu-tantra)’는 후기밀교이며, 이러한

3) R. Dahlke, *Arbeitsbuch zur Mandala Therapie*(Munchen: Munchen Press, 2001), p.33. 정여주, 『만다라와 미술치료』(서울: 학지사, 2001), pp.26-37 참조.

경전집성을 티베트 경전의 분류방식에서는 ‘무상유가(無上瑜伽)탄트라’로 말한다. 힌두교는 바라문 이후의 ‘유(有, Sat)’사상으로, 불교 연기법의 ‘공(空, sunyata)’사상과 대비된다. 8-9세기경 양 전통에 몰아친 탄트라의 영향에서, 힌두교는 현실과 밀접한 신격(神格)으로 대중과 접근하여 속화(俗化)된 입장인데 반하여, 밀교는 유가행파(瑜伽行派)수행을 밀교체계에 반영시켜서 관념성향을 드러냈다.

힌두교의 사상은 전통적 창조신(神)인 브라만을 남성원리를 가리키는 쉬바(Siva)와 여성원리인 샤크티(Sakti)로 나누고 전자에 대해 절대적이며, 이성속성을 부여하고, 후자에 대해 생산적이며 활동 속성을 부여하여 우주절대와 현상전개의 양면성을 드러냈다. 반면에 불교의 경우는 현실세계를 공성의 지혜를 파악함으로써 불성의 참된 실체가 드러내는데 근본 목적이 있으며, 탄트라의 육신의 해탈도 삶과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영성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관조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신라시대의 만다라의 비로자나불상은 8세기 중엽에 출현하기 시작하여 9세기 중엽 이후의 통일신라 후기에 크게 유행하였다. 이는 『화엄경』의 법신불에서 발전한 개념이지만, 지권의 인상은 중기밀교의 경전인 『금강정경』에서 채택된 형상으로 추정되며, 금강계의 본존불인 대일여래의 인상과 연관된다. 금강계 대일여래의 도상이 화엄의 비로자나불상에 수용되어 통일신라기에 널리 믿어지게 된 것은 화엄사상과 밀교가 융합된 불교사의 배경에 따른 것이다.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은 766년, 석남사에 등장한 이래 대부분 독존여래 지권인(智拳印)으로 표현된 것이 것으로 현재 약 50점이 알려져 있다.⁴⁾ 그중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만다라로는 859년, 보림사 비로자나불상과 865년, 도피안사 비로자나불상 2구이다. 최근, 883년의 조성연대로 밝혀진 해인사 목조 비로자나불상 2구도 확인된 바 있다. 반면에 불상의 대좌나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호의 명문에 의해 간접적으로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사례로는 766년의 석남사 비로자나불상을 비롯하여 863년경의 동화사 비로암의 비로자나불상 및 금동사리함의 비로자나불상을 들 수 있다. 또한 불국사의 삼존불상이나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금동사리함과 청암사 수도암 삼층석탑의 탑신에서 만다라의 오방불(五方佛)이 발견된 것도 통일신라의 만다라 화용에 해당한다.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은 법의를 통견 또는 우견편단으로 입고 지권인이 좌권인보다 많이 나타나서 법의의 착의법이 수인형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부좌한 두 다리 사이에 부채꼴 모양의 주름은 석굴암 본존불의 양식을 따른 것으로

4) 智拳印은 이(理)와 지(智), 중생과 부처, 미혹함과 깨달음이 원래는 하나라는 뜻인 수인. 양손을 가슴 앞에 올리고 이 수인을 짓는다. 비로자나불이 취하는 수인이다. 비로자나불이 결하는 수인으로 그 형상은 좌우 엄지를 속에 넣고 다른 네 손가락으로 주먹을 권다. 다음에 왼손을 가슴까지 올려 들고 검지를 풀어서 세우며 오른손 주먹 중의 소지로써 왼손 검지의 첫째마디를 잡는다. 오른손 주먹 속에는 오른손 검지 끝과 왼손 검지 끝을 서로 댄다.

통일신라 후기의 비로자나불좌상에 대부분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항마촉지인의 석가여래상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으로, 입상의 경우 거의 통견 법의에 지권인을 취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현존하는 유물에서, 보살형과 보관여래형의 지권인상의 사례가 적은 데 반하여, 여래형의 비로자나불상이 통일신라 후기에 크게 유행하게 된 것은 불교신앙에서 그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7세기 신라 때부터 왕실이나 귀족세력에 기반을 두었던 화엄사상의 불교가 성행함에 따라 8세기 중엽의 중기밀교 만다라는 독립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화엄사상에 수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9세기 중엽에 이르러 경문왕대의 왕권강화 정책과 함께 화엄 사상을 비롯한 불교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비로자나불이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통일신라 후기에 유행하게 되었다. 금강승불교는 화엄사상과 유사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후기에 전래된 선사상에 화엄경향이 강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중기밀교와 대승불교 사상은 만다라의 형상으로 상통하는 사상기반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통현상에 따라 통일신라시대의 비로자나불상은 화엄종과 선종 사찰의 본존으로 예배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이 법신불의 개념으로 종파를 초월한 새로운 신앙의 대상으로 등장하여 비록 지권인을 취하고 있더라도 밀교의 금강계 대일여래로 발전하지는 않았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결국 통일신라시대의 비로자나불상은 불교신앙의 시대별 추이에 따라 화엄사상과 융화하면서 만다라의 성격과 의미가 화용과정에서 변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종교교육에서 만다라 활용

금강승불교의 교리와 수행체계를 최초로 체계화한 『대일경』은 대승불교사상이 다양한 측면에서 결합된 것으로, 중관, 유식, 여래장사상이 경전에 반영되어 있다. 이 경전의 비로자나여래는 『화엄경』의 비로자나불을 계승한 것이지만 보살과 같이 공성에 머물면서 중생구호를 위해 다양한 신변을 드러내는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묘사된다. 금강승불교의 붓다들은 열반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수용신과 화신을 통해 중생을 보살피는 존재들이다.

열반을 성취한 붓다는 열반이라는 절대세계에 도달한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지혜의 광명인 수용신의 범주를 넘지 않으며, 중생의 현실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은 대보살의 성격을 갖는다. 유식을 통한 불신론(佛身論)은 붓다의 몸은 법신, 수용신, 화신의 세 가지로 드러난다.⁵⁾ 『금강정경』에는 중생의식과 우주법계가 오불의 속성(屬性)을 지니기에 현화한 것으로 보는 부족사상(部族思想)이 나타났다.⁶⁾ 오불

5) 김영덕 외, 『밀교세계』(경주: 위덕대출판부, 2007), pp.161-163.

6) 김영덕 역주, 『금강정경』(서울: 동국역경원, 2007), pp.62-65.

은 비로자나불을 중심의 아촉불, 보생불, 무량수불, 불공성취불로 구성되며, 후기 금강승 불교 경전에는 오불의 범주에 탐진치(貪瞋癡)와 아만(我慢), 질투(嫉妬)의 다섯 번뇌도 포함시켜 불성의 부족으로서 수용하기에 번뇌와 열반을 상통시켰다.

인도 후기밀교 시대 이전에 출현한 『대일경』에는 의식집중을 통해 내적 변화가 관찰된다는 사실이 오자엄신관(五字嚴身觀)의 수행에서 나타났다. 『금강정경』의 오상성신관의 수행에서 가슴에 월륜을 관상한 의식의 집중이 수행자의 생체에너지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 이에 근거하여 의식집중과 생리적 변화의 관계가 오랜 시간을 통해 관찰되고 실험되고 분석되었다.

현교에서는 바라밀 수행을 통해 삼겁(三劫)을 경유하여 성불하지만, 금강승불교는 당대 생의 성불이 가능하다고 본다. 불교수행의 문제는 마음과 번뇌, 그리고 육체와 성의 문제이다. 인도 후기밀교는 자유 실현을 위해 인간의 현실에 담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실체를 명확하게 들여다 볼 때 자유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한 만다라에서는 수행동기와 내면성찰을 중시함으로써 심층의식의 투과를 전제로 삼는다.

종교교육에서 만다라 화용사례로, 초등학생의 공격성과 불안에 미치는 효과, 동성에 청소년의 정체성 확립과 영향을 고찰한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⁸⁾ 앞의 경우, 만다라 화용의 종교교육을 받고 공격성과 불안에 긍정적이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뒤의 경우, 만다라 화용의 프로그램에서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앞의 경우에서 그 대상이 초등학생 6학년이었다면, 뒤의 경우에는 인문고의 여학생으로, 일탈관계로 담임이 의뢰한 동성에 청소년이었다. 앞의 경우는 60분씩 16회에 걸쳐 만다라 화용이 이루어졌고, 뒤의 경우는 60분씩 26회에 걸쳐 만다라 화용이 이루어졌다. 앞의 경우는 SPSS 10.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격적이며 무력감을 느끼는 참여자가 만다라 수업을 통하여 자신감과 긍정적 성취의욕을 불러일으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통계처리하고 있다.⁹⁾ 뒤의 경우는 DAP, 성역할 정체성, 우울척도, 행동관찰을 위해 자기통찰 프로그램이 측정평가 용도로 사용되었다.¹⁰⁾ 만다라 화용결과를 집약하면 이와 같다.

첫째, 수업현장에서 만다라 화용으로 거칠고 안정적이지 못한 아동이 자신과 주변을 긍정적이며 낙관적으로 수용하고 안정적인 자신감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었다.

둘째, DAP검사를 위한 성역할 정체성 지표에서 사전검사는 성역할 정체성 혼란 및 동

7) 위의 책, 62-68. 금강삼마지에 들어 금강계대만다라를 설하며 비밀공양으로 유정의 유익을 실현함을 표상한다.

8) 서경희, 『만다라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공격성과 불안에 미치는 효과』(경성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pp.45-46. 정남희·최외선, 『만다라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아 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제10권 2호(한국미술치료학회, 2003), pp.201-230.

9) 서경희, 위의 논문, p.46.

10) 정남희·최외선, 앞의 책, p.227.

성에 특징, 성적 미숙으로 나타났지만 사후검사에서는 성역할 정체성 확립, 여성적 자신감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우울지표에서 사전검사는 우울현상의 다양한 사례, 시무룩한 표정, 일정치 않은 시선, 눈동자 불안, 만다라 그리기 거부 등으로 나타났지만, 사후에는 현실을 직시하는 정상지표로 바뀌었다.

셋째, 성역할 정체성 검사에서 사전검사는 양성성에서 사후검사는 여성성으로 나타나 여성으로 자신감을 보였으며, 내담자의 성역할 정체성 확립에 분명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넷째, 우울검사결과 사전검사에서는 심한 우울상태가 뚜렷한 반면에 사후검사를 통해서 는 우울에서 벗어난 명량한 기분으로 바뀌어서 만다라 화용이 우울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행동관찰 변화에서도 검사를 받기 이전에는 소극적인 활동반경이 나타났다면, 사후에는 응성그룹의 탈퇴, 적극적 활동 등 성역할 정체성, 명량 등의 긍정적 변화로 바뀌게 되었다.

IV. 만다라 심층의식의 종교교육 화용

종교교육에서 만다라 화용은 심리치료에서 가능하다. 심층의식의 내면갈등을 표출하여 규범과 현실갈등을 만다라를 통하여 투사하거나 객관화할 수 있다. 만다라 화용은 화합의 느낌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자기 치료효과가 있으며, 성스러움과 질서의식을 부여한다. 화용 과정에서는 생명의 역동성을 느낀다. 만다라의 화용은 시각연상을 근거로 심층의식을 자극하면서 내면에 긍정에너지를 활성화하게 만든다. 만다라 화용의 이미지는 종교교육의 상상력에서 내면적 균형감각을 일깨운다. 만다라 화용은 상징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에서 내면의식에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외부·육경(六境 : 眼境, 耳鏡, 鼻鏡, 舌境, 身境, 意境)이 작용하고 내부·육근(六根: 眼耳鼻舌身意)이 반복 경험됨에 따라서 잠복성(潛伏性)이 경계가 되어 나타난다. 경계 영향과 육근동작의 반복에 따라 육식(六識 : 眼識, 耳識, 鼻識, 舌識, 身識, 意識)이 형성되며 그 강도에 따라 제7식(第七識: 末那識)이 형성되고, 제7식 강도에 따라 제8식(第八識 : 阿賴耶識)이 형성된다. 제7식 말나식은 기억저장이며, 제8식 아뢰야식은 잠재의식 탱크이다. 제8식 강도에서 제9식으로도 전환하여 맑은 아마라식(阿末羅識)에 이른다.¹¹⁾

11) 아마라는 아말라(阿末羅)·암마라(菴摩羅)·아마라가(阿摩洛迦)로도 음역하는데, 제8식인 아뢰야식이 미망(迷妄)을 버림으로써 청정(淸淨)상태에 이름이다. 청정·무구(無垢)·백정(白淨) 등으로 의역되며, 제9식에 해당한다. 마라(摩羅)는 원래 악(惡) 또는 더러운 때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이 식은 본래 깨끗한 것이지만 태어날 때에 무명(無明)이 끼어 온전하게 깨끗한 상태를 잃었다. 다만 깨끗한 것이 감추어져 있으므로 장식(藏識)이라고 하며, 진(眞)·망(妄)이 함께 있다고 하여 진망화합식(眞妄和合識)이라고 한

만다라 화용에 따른 의식의 ‘전의’(轉依)를 금강계만다라는 성신회로 표현한다. 금강계 만다라는 9식(識)을 5지(智)로 변형하기에 전식득지(轉識得智)라는 유식사상을 반영한다. 종교교육의 만다라 화용은 정서지능 뿐만 아니라 정서지능의 하위영역, 표현능력, 촉진능력, 활용능력, 조절능력에 이르기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는 만다라 화용이 참여자의 정서지능 전반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¹²⁾ 만다라의 종교교육 화용은 크게 공간화용, 시간화용, 개념화용을 통하여 이루어지기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화용범주와 그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 공간화용

만다라의 공간화용은 공간의 중심성과 상통하여 ‘범성불이’(凡聖不二)의 의식차원을 드러냄을 말한다. 구회(九會)구성의 공간적으로 보리심의 깨침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한다. 만다라 중심부에 해당하는 성신회에 초점을 두기에, 성신회는 금강계의 중심표상이며 9식의 전의로서의 오불에 집중된다. 오불은 금강계만다라의 전체모습을 표상하며, 성스러운 공간의 역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공간화용으로 인상, 색상, 좌상이 활용된다.¹³⁾ 결국『금강정경(金剛頂經)』의 금강계만다라는 대일여래와 합일하는 심리과정을 표현한다. 오른쪽 아래의 향삼세삼마야회로부터 출발하여 왼쪽으로 돌아 나선형으로 나아가 중앙에 이르고 있다. ‘향삼세(降三世)’는 과거·현재·미래의 세 범주를 공간적으로 초월함을 표상한다. ‘삼마야’는 손가락의 결인을 통하여 내면의식의 지향성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 일인회(一印會)는 공간적으로 대일여래 별존 만다라를 안치하여 공간적 상통이 진여와의 계합으로 표상한다. 욕망에서 깨침의 관상과정을 ‘향상문(向上門)’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상에서 성심으로 들어감이다. 반면에 깨침에서 욕망계로 현전은 생명실상의 자비현현으로 ‘향하문(向下門)’이 된다. 만다라 공간화용으로 근원적 진여와 상통하면, 깨달음 추구의 마음이 자비심과 상통하여 정신치유가 진행된다.¹⁴⁾

다. 현장(玄奘) 이후의 신역(新譯)인 《해심밀경(解深密經)》에서는 이러한 깨끗한 식을 상정(想定)하여 제9식 아마라식이라고 하였다. 제9식은 사실 반야(般若)에 해당한다.

12) 백양회, 『만다라를 적용한 자기통찰이 동성애청소년의 성역할 정체성 및 우울에 미치는 사례연구』, 『만다라와 미술치료』(서울: 학지사, 1998), p.22.

13) 줄저, 『만다라: 깨달음의 영성세계』(서울: 열화당, 1992), 153-156.

14) 중앙 대일여래는 ‘심왕(心王)’이다. 이에 “권속은 왕비 같고, 대일(大日)은 그 중앙에 자리 잡고 있구나. 자나는 누구인가? 본래 심왕이구나.” 勝又俊教, 『弘法大師著作全集』(東京: 山喜房佛書林, 1973), p.98. 대일여래는 주위에 많은 보살을 거느리고 중앙에 앉아 있다. 대일여래는 원래의 자기 마음의 본질(만다)를 뜻한다.

(1) 인상과 색상

〈표 1〉 금강계만다라의 인상

방위	여래	역할(役割)	인상(印相)	색상	빛깔의 의미(意味)
동방	아촉여래	항마성도(降魔成道)	촉지인(觸地印)	푸른	건고한 보리심
남방	보생여래	복덕서원(福德誓願)	여원인(與願印)	노랑	원만한 복덕구족
서방	무량수여래	자비의 평정심	선정인(禪定印)	붉은	큰 자비심의 발양
북방	불공성취여래	공포심 제거의식	시무외인(施無畏印)	초록	성취의 부단한 노력
중앙	대일여래	우주의 대생명 활동	지권인(智拳印)	흰색	절대성과 영원성

(2) 좌상

대일여래와 네 여래의 의존관계는 좌상(座相)으로 표현되며 초공간적 역동성을 발휘하여 깨침의 가속을 동물속성으로 비유한다. 동⇒남⇒서⇒북으로 점점 빠른 속도의 동물을 공간적으로 안치하여 중앙의 대일여래로 힘차게 다가가는 형상을 표상하고 있다. 걸어가다가 뛰고 날다가 빛처럼 빠르게 가는 과정은 초월의 역동성을 표현한다. 깨달음을 완성하려는 강한 영성적 열망을 반영한다.

〈표 2〉 금강계만다라의 좌상

방위	여래	좌상(座相)	속 성
동방	아촉여래	코끼리	느리고 무겁게 진행한다.
남방	보생여래	말	민첩하게 질주한다.
서방	무량수여래	공작	하늘을 향해 비상한다.
북방	불공성취여래	금시조	빛과 같이 빠르게 향한다.
중앙	대일여래	사자	태양의 심장(광명지혜 표상)

2. 시간화용

만다라 화용을 통해 금강계만다라는 시간의 가역성(可逆性)을 표상한다. 만다라의례로서의 금강염송차제의례에 의해 일상시간의 흐름을 분절하여 시간의 초월성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상시간 무화(無化)는 깨침을 ‘지금 여기’에서 시간적으로 경험하려는 영성차원을 보여준다. 금강염송차제는 만다라 화용에서 시간의 가역성을 인식하게 하는 정합성을 보여준다. 일상시간의 무화(無化)는 제감(制感)⇒집지(執持)⇒정려(靜慮)⇒삼매(三昧)의 네 단계의 과정에 의해 깨침의 과정으로 시간적 표상을 이루게 된다.¹⁵⁾

15) Mark Epstein, 전현수 외 옮김, 『붓다의 심리학(Psychology of Buddha)』(서울: 학지사, 2006), pp.273-275참조.

〈표 3〉 금강계만다라의 시간 가역성

단계	의미		오상성신관	의미
1. 제감	감각작용의 진정		통달보리심 (通達菩提心)	자기마음을 월륜으로 본다. 참여자는 대상을 향한 의식을 월륜의 형상에 일단 집중한다.
2. 집지	정의(情意)작용의 진정		수보리심 (修菩提心)	내면세계의 일점에 집중한다.
3. 정려	사유(思惟)작용의 진정		성금강심 (成金剛心)	월륜의 금강형태를 사유한다. 산란된 사유작용을 통어하고자 오고저(五鉤柙)를 사용한다.
4. 삼매	기억의 진정	유상삼매	증금강신 (證金剛身)	여래지혜에 몰입하여 여래의 금강신만 의식할 뿐 다른 물질계는 지각하지 아니한다.
		무상삼매	불신원만 (佛身圓滿)	법계와 월륜은 무차별의 전일성을 이루고 혼연일체 되어 결국 원만구족을 지각한다.

3. 개념화용

금강계만다라의 개념화용으로 오지(五智)를 포함한 육대(六大)로서 우주를 표상한다. 여기서 ‘대(大)’는 ‘위대한 종자’의 의미로 개념적인 근본을 말한다. 금강계만다라의 중심부의 성신회에는 오불주처(住處)인 보루각을 표시하는 오해탈륜(五解脫輪)이 그려져 있다. 이 원의 네 모퉁이에 지(북동), 수(남서), 화(남동), 풍(북서)의 사대신(四天)이 도륜(圖輪)을 지지한다. 이들은 사대를 표상하고 대원륜은 공대(空大)를, 마음은 식대(識大)로 나타나며, 이 모두가 육대의 표치(標幟)가 된다.¹⁶⁾

금강승불교에서는 이 육대를 총체적 입장에서 제법본체, 법(法)으로 보기에 삼라만상이 근원적 우주현상을 이루며, 그들 각각은 엄연히 구별되면서 전체적 통일성을 이룬다. 이러한 개념화용이 육대체대설(六大體大說)로서 나타나서 우주를 법신으로 인식한다. 동시에 육대를 연기(緣起)로 보면서 육진(六塵)의 생명의식을 함장하기에 금강계만다라의 오불은 다음처럼 상호의존성을 표상한다.

〈표 4〉 금강계만다라 오불의 개념화용

방위		여래	색상	형상	의미
물과 불의 활동의 세로축	동방	아촉여래	청색	원형	물(水)을 표상
	서방	아미타여래	적색	삼각형	불(火)을 표상
생명 유지의 수평축	남방	보생여래	황색	사각형	땅(地)을 표상
	북방	불공성취여래	녹색	반달형	나뭇잎의 바람(風) 표상
중앙		대일여래	흰색	구형	공(空)을 표상

16) 위의 책, 157-158.

중양의 대일여래가 발하는 지혜를 본받아 거울처럼 원만하게 비취는 작용은 아촉여래(大圓鏡智)가 한다. 다시 이를 평등하게 사방으로 방사하는 보생여래(平等性智)가 맡고, 그것을 받아 내면을 비취고 본질을 관조하는 무량수여래(妙觀察智)가 작용하고, 마침내 지혜의 성취를 승화시키는 불공성취여래(成所作智)가 정신작용의 오묘한 다양성을 상징적으로 표상한다.¹⁷⁾ 이러한 모습에서 대일여래의 지혜를 반사하고 확산하는 수동성과 집약하고 승화시키는 능동성을 함께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금강계만다라는 유식사상에 입각하되, 오대(五大)의 역동성을 배척하지 아니하면서 식대(識大)를 중심으로 우주의 공성개시를 묘사하므로 지혜만다라로서의 화용을 보여주고 있다.

V. 맺음말

이처럼 만다라는 역사적으로 금강승불교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에서 비롯하였다. 현대에는 만다라가 종교교육에서 다양하게 화용되면서 심리적 에너지를 내면에 집중시키고 서로 반대되는 상극을 연결하고 그 사이에 중심을 이룬다. 용은 만다라의 도움으로 내적인 조화를 얻게 되고 진여와 일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만다라를 화용함에 있어 그리는 행위는 내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질서구축의 ‘능동적 상상’이 되며, 이 상상은 창조적 역동성을 발휘한다. 능동적 상상에 의한 만다라의 화용은 심층의식의 깊은 곳의 심상(心象)에 원형적 자기의식을 유도함으로써 깨달음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용에 의하면, 만다라는 개인의 심층의식에 잠들어 있는 원형(原型: Archetype)을 깨워주고 활기 있게 해주는 열쇠가 된다. 만다라는 중심과 관련된 균형적 효과 때문에 분열인성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횡단매개 역할을 하여 공공의식을 가능하게 한다. 만다라에 의한 시공의 사방의 감각도 훌륭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교교육에서 만다라 화용은 참여자는 만다라를 중심에서부터 그려나갈지 혹은 원주에서 중심으로 그릴지를 물어보게 된다. 내향적인 사람은 심층의식에서 원의 중심에서 원주를 향해 색을 칠한다. 안에서 밖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정신과 영혼의 발전을 원하거나 자신 안에 있는 고요한 에너지를 활기 있게 하고 싶은 욕구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내향 환자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만다라를 즐겨 그림으로써 자기 성장과 성숙으로의 시간을 갖으려 한다.

이에 반해 원주에서 중심을 향해 그리고자 하는 사람은 현재 자신이 신경질적이고 힘

17) Musashi Dachikawa, *Nepalese Buddhist Icology*, 金龜山 譯, 『만다라의 신들』(서울: 동문선, 2001), pp.46-7.

이 없으며 지쳐있거나 어떤 것에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다. 또한 외향적인 사람은 원주에서 중심을 향하여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 자주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거나 근본적으로 외향적인 환자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그림을 그림으로써 중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종교교육에서 원 중심에서 원주로 향하는 만다라를 그리도록 유도해야 하는 대상은 내향성을 겪는 사람들이다.

또한 만다라에 나타난 색, 형태, 숫자의 기본적 상징도 만다라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림을 그리거나 색을 칠할 때는 이러한 상징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신의 직관과 현재의 내적 기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그림에 대한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다시 들여다본다. 또한 만다라의 형태와 색 등에 대한 일반적 상징을 자신의 그림과 비교해본다. 중요한 것은 그림이 자기 자신에게 전하는 개인적 메시지를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종교교육의 상징은 심층의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반적 상징적 맥락을 심층적으로 연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대문화의 맥락에서 심리적, 정신적으로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경우, 종교교육을 통하여 만다라 명상이나 만다라의 형상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자신의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회복하거나 중심을 찾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만다라를 그리거나 만들기 전에 준비예식을 철저히 할수록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나기에, 준비의례를 중시하게 된다. 종교교육에서 만다라 화용을 통하여 분열된 심층의식의 통합, 삶의 본질, 자유 실현에 이르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적 역할을 기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만다라는 정서지능과 인격통합의 종교교육뿐만 아니라, 영성치료, 공공영역에 이르기까지 심층적인 화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는 인간이성을 기초로 서로 상통하고 자아를 완성하려고 하되 그 범위는 전 우주를 모두 포괄하려고 시도한다. 그 전체 속에서 생명상통과 교감을 통한 차이점과 다양성을 함장하게 된다. 탈현대의 사회에서는 종교다원주의의 가치를 수용하여 종교 사이의 상통이 강조되고 있다. 종교다원 형상에서 상통을 제대로 하려면 어떠한 제약도 전제하지 아니하는 임의성과 자율성이 요청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만다라의 종교교육 화용은 이미지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신념체계를 이어주고 살리는 횡단매개의 역할을 교육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대일경』
 『금강정경』
 김영덕 외. 『밀교세계』. 경주: 위덕대출판부. 2007.
 김영덕 역주. 『금강정경』. 서울: 동국역경원. 2007.
 김용환. 『만다라』. 서울: 열화당. 1998.
 수잔 핀처. 김진숙 옮김. 『만다라를 통한 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1998.
 정여주. 『만다라와 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2001.
 홍윤식. 『만다라』. 서울: 대원사. 1996.
 한국불교원전연구회. 『인물로 보는 한국의 불교사상』. 서울: 예문서원. 1998.
 한자경. 『불교철학과 현대윤리의 만남』. 서울: 예문서원. 2008.
 허일범. 『한국밀교의 상징세계』. 서울: 해인행. 2008.
 勝又俊教. 『弘法大師著作全集』. 東京: 山喜房佛書林. 1992.
 Fincher, Susanne. *Creative Mandala*. Boston: Boston Press. 1991.
 Jung, C. G. *Man and His Symbols*. NY: Doubleday. 1964.
 _____. *Mandala Symbolism*. Princeton: Princeton Univ. 1973
 _____. *Memories, Dreams, Reflections*. NY: Random House. 1965.
 _____. *Symbols of Transformati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_____. *Alchemical Studies*.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Kellog, Joan. "The Meaning of Color and Shape in Mandala". *American Journal of Art Therapy*. 16. 1977.
 Kellog & F. B. Dileo, "Archetypal Stages of the Great Round of Mandala", *Journal of Religion and Psychical Research*. 5. 1982.
 Epstein, Mark. *Psychology of Buddha*. 전현수 외 옮김. 『붓다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6.
 Musashi Dachikawa. *Nepalese Buddhist Icology*. 金龜山 譯. 『만다라의 신들』. 서울: 동문선. 2001.
 Tucci, Giuseppe.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e Mandala*. London: Rider and Company. 1961.

원고접수: 2009년 10월 5일 1차심사: 11월 12일 게재승인일: 12월 1일

연구자소개: 김용환

① 전공: 종교윤리(서울대 철학박사) / 소속: 충북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② 관심영역: 종교윤리, 세계윤리, 생태윤리, 공공윤리

③ 주요논저: 『만다라-깨달음의 영성세계』, 『세계윤리교육』, 『종교윤리와 정산사상』

④ E-mail: sunyanan@cbu.ac.kr

Abstract

A Study on Mandala's Educational Pragmatics of Religion

Kim, Yonghwa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Mandala's Educational Pragmatics of Religion as self-insight through Mandala class. It can be contributed to the imaginative dynamics and reducing depression in depth-consciousness. In this study, we can utilize the theory of color energy remedy system, and minute energy of crystals and the pure frequency of light sources.

Carried out acceleration of energy circulation under the influence of light, Activated vibrations help the recovery and development of the physiological state of each students with the resonance between Bio-field frequencies and the color frequencies. Meanwhile, conduct Mantra chanting, O-ring tests to check the development. Various changes can be found in the moral class. The color therapy includes no physical stimulus in itself.

Icons of Vairocana started to appear in the middle of the 8th century and became vastly popular and long remained so in the later half of the Unified Silla that was after the middle of the 9th century. Its origin lay in India and China. The concept of Vairocana originally developed from Dharmakaya of "Avatamska Sutra". The Buddhist Scripture of the Middle Esoteric Buddhism and was related to the Maha-Vairocana, the principal image of Vajradharma among the Mandalas of the Two Worlds in Esoteric Buddhism. The Iconography of the Maha-Vairocana had been adopted in the images of Huayen Vairocana and was worshiped in the Unified Silla.

This fact supports the interpretation of Maha-Vairocana(大日如來) in Vajradhatu mandala(金剛界曼多羅) of the middle period's Vajrajana Buddhism. As such, we can see that character and meaning of Vairocana of the Unified Silla Dynasty was modified into Silla style as it became harmonized with Huayen School according to epochal trend of Buddhist faith.

We can utilize class activities by mandala to improve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participants. When mandala was applied to conduct, there was fou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gap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i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ubarea of it, including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emotional facilitation of thinking, utilization of emotional knowledge and regulation of emotion. The educational pragmatics of religion can become effective in enhancing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the participants.

Key Words : transformation of consciousness Maha-Vairocana Vajradhatu mandala, educational pragmatics of religion, depth-consciousness, emotional intelligence